



1 천안시청사 2 독립기념관

##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 추진

충남 천안시가 한류를 통해 우리 문화·역사를 세계에 알린다는 목표로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K-컬처 세계박람회’는 독립기념관과 협력해 K-팝과 드라마, 영화, 패션, 화장품, 한글문화 등 대중문화 한류 콘텐츠와 각국 독립운동을 연구·전시하려는 행사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한류 팬들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세계에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행사장 주변에서 캠핑을 즐기며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정신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이다.

1987년 개관 후 방문객이 6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2019년에는 18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0.8% 수준인 1만5천여 명에 그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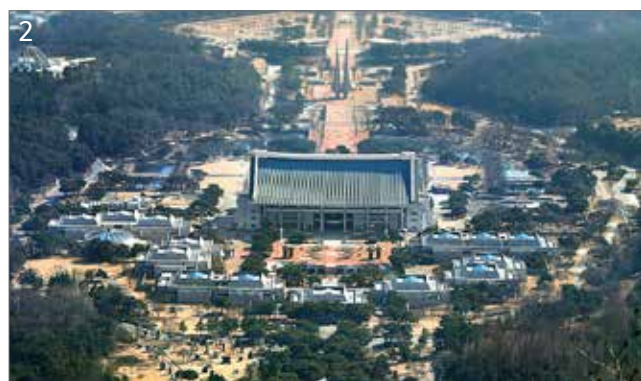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K-컬처 세계박람회’ 사업을 정식 제안하고 충남도와 국가보훈처, 백범김구기념관 등을 방문해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 2월 K-컬처 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참가 업체를 공모했으며 지난 4월 11일 우선 협상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우선협상 대상 기관과 협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K-컬처 세계박람회에 앞서 작은 규모의 지역박람회를 내년에 먼저 열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 제1·2차관을 만나 박람회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독립기념관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소망하던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최적지”라며 “공식적인 K-컬처 세계박람회에 앞서 지역박람회를 열어 콘텐츠 개발 등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 문화로 세계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K-컬처 세계박람회를 통해 독립기념관 활성화는 물론 우리 문화를 세계인이 올바르게 인식할 계기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2